

인구소멸 과제 해결 총력

무주사랑상품권 지역 활력 ↑

전북대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결과 지역경제 큰 보탬

무주군이 지난 2019년부터 도입한 무주사랑상품권이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무주군이 1월부터 2개월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무주사랑 상품권 지역경제 효과 분석' 연구용역에 따른 것이다.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업체 282개소와 소비자 610명을 대상으로 무주사랑상품권 도입에 따른 지역경제와 소비촉진 파급효과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연구용역 결과, 코로나19 이후 상품권 가맹점들의 연매출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24.2%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으로 인해 조사대상 56.3%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32%는 10%이상 증가했다고 답변했다.

또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이후 1인당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답변한

업체의 비중도 55.7%에 달했으며, 2019년부터 무주사랑상품권에 가입한 사업체의 경우 2020년에 가입한 사업체 보다 평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피해를 1천만 원 정도 상쇄할 수 있었다.

가맹업체의 매출액 증대 효과를 추정할 결과 2020년 1,452만 원에서 2021년 3,105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밖에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감소한 매출액의 충격을 흡수하고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했으며, 온라인 소비를 무주지역 내 소비로 전환했을 뿐 만 아니라, 타지역 소비를 무주지역 내 소비로 전환,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산업경제과 박각준 과장은 "가맹업체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무주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음을 알게 됐다"며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감소한 매출액의 충격을 흡수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영업을 이어갈 촉매제 역할을 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인구활력추진단 운영... 지역 특색 살린 지방소멸대응 투자계획 수립

진안군은 23일 급격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활력추진단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안군은 용담댐 건설로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학생수의 감소가 심화되는 등 군 인구 현황 분석을 토대로 투자계획 수립에 필요한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신규 사업 발굴 및 투자계획 확정을 위해 인구활력추진단을 운영한다.

진안군 인구활력추진단은 김창열 부군수를 단장으로 읍·면 추진단과 행정복지, 농촌경제, 안전환경 등 4개 부과로 운영한다.

여기에 향후 투자계획 수립 방향에 따라 지역 내 교육지원청, 농업 등 유관 기관을 비롯한 중간조직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23일에는 상황실에서 인구활력추진단 행정복지분과회의를 개최하고 교육, 주거 및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추진단은 ▲농촌경제분과회의를 통해 농업·청년 사업에 대해 지역 여건, 실행가능성, 사업의 효과 검토



진안군은 23일에는 상황실에서 인구활력추진단 행정복지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안전환경분과에서는 관광, 환경 등에 대한 분야별 논의를 거친 바 있다. 군은 회의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인구활력추진위원회,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투자계획을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진안읍을 비롯해 11개 읍·면을 직접 찾아 순회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주민과 공유하고,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업 발굴에 나서

는 등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 인구소멸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진안군이 마주한 인구소멸이라는 과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의기투합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에서는 전국 89개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신설해 연1조원, 10년간 총 10조원 규모로 운영하며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전폭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이우규 진안군의원, "공중화장실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해야"

진안군의회(의장 김광수) 이우규 의원(가 선거구)은 23일 제27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중화장실의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진안군에는 196개소의 화장실이 있으며 이중 군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172개소, 개인소유의 화장실은 24개소가 있지만 설치된 화장실마다 관리주체가 달라 관리나 유지보수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중화장실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책임부서를 지정하여 우리 군의 모든

공중화장실의 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예로부터 여행을 가서 그 지역의 문화수준을 알아보려면 공공장소의 화장실을 가보라는 말이 있다"며 "화장실 관리 일원화를 통해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 조성 및 청정한 진안군의 이미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힘써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정옥주 진안군의원,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안정화 대책 마련을"

진안군의회(의장 김광수) 정옥주 의원(가 선거구)은 23일 제27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안정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70ha에 400여 농가가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며 소득을 올리고 있다"며 "동일한 시설에서 수년에 걸쳐 재배하며 발생하는 연작장해를 해결하기 위한 토양병해충 방제약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2011년부터 10년 넘게 동결된 시설하우스 지원 단가와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자재 및 인건비를 비교하며 "늘어난 공사비와 자재년에 1년 농사계획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며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보조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옥주 의원은 "예로부터 '농업은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근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을 정도로 중시해왔다"며 "본격적인 영농시기에 앞서 우리 군민들의 근심을 덜어줄 선제적 조치와 대책마련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장계노인복지관 개관

장수군은 지난 22일 어르신들의 복지 접근성 향상과 노인복지 인프라 확대를 위해 장수군노인복지관 분관인 장계노인복지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은 김용문 장수군의회 의장 및 군의회 의원, 박용근 전라북도의회 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및 지역 어르신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장계노인복지관은 장계면 기초생활 거점사업과 연계해 장계문예복지관을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장수군 북부권(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어르신에게 다양하고,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은 물론 노인복지서비스 거점기관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설은 연 면적 1,747㎡ 규모의 건물로 1층은 사무실, 당구장, 식당이 위치

해 있으며, 2층은 건강증진실, 정보화 교실,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3층은 강당 등이 조성돼 있다.

군은 앞으로 장계노인복지관을 통해 지역어르신들의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상담 및 교육, 노인 여가선용 및 활동 지원 등과 함께 1~3세대가 소통하는 문화 공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장수군노인복지관 정호영 관장은 "어르신들과 더불어 사는 다양한 사회를 위해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성덕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발굴해 어르신들이 장수군에서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청년정책·창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진안군은 23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2022 진안청년정책 및 창업지원사업'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2년 진안청년정책 제도와 진안청년창업지원사업 및 정부지원 창업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창업지원사업은 31일까지 모집 접수 중이며 대상은 만18세 이상 만 45세 이하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진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등록 후 3년 미만 사업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지난해 건의사항으로 나왔던 임차료지원(월 최대 25만원, 8개월간)이 신규 추진되며, 사업장 개선비는 리모델링, 기계구축, 홍보마케팅 등을 최대 1,800만원(자부담 20%이상, 부가세제외)을 지원한다.

다만 진안지방보조금관리조례 개정으로 사업장 개선비 중 리모델링 사업비는 적법한 건축물에 대해 부가등기를 꼭 해야하며, 임대료 경우 사업 관리기간인 5년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만 가능하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과학영농 종합시설 마련한다

무주군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유통과 최신 농업인 교육시설 확충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을 배양,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 과학영농종합시설을 마련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업기술센터 내(무주읍 당산리 749-2 일대)에 지하2층 지상2층 연면적 1,300㎡규모로 들어서는 과학영농종합시설은 사업비 41억4,900만원을 투입해 올 12월 준공 목표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원만한 공사 준비를 마쳤다.

지난달 착공한 과학영농종합시설은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비롯한 세미나실, 교육장, 소회 의실 등을 갖추며, 농업과 관련된 교육 및 시험·연구 기능을 갖추게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